일 주 문



외국인 영어즉문즉설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6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영어즉문즉설을 개최했다.



미얀마 고승 수행지도

마가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스님은 6월 17~18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미얀마 에인다까 사야도 초청 법회와 수행지도를 개최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희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스님은 6월 5일 복지관에서 권익강좌 일환으로 'SMART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불교교육연합회 제67차 정기총회

윤성이 불교교육연합회장(동국대 총장)은 6월 21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불교교육연합회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9 행복바라미 워크숍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6월 29~30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9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계종 前문화부장 종민 스님 입적

11일 승랍 31년으로… 13일 영결식 봉행



조계종 총무원 前문화부장 종민 스님(서울 옥천암 주지)이 6월 11일 오후 4시 50분경 동국대 일산병원서 입적했다. 승랍 31년, 세수 59세. 종민 스님은 평소 당뇨로 인한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진행됐으며 종민 스님의 영결식은 중앙종회장으로 엄수됐다.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다.

영결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장례위원장 성행 스님 등 문중 스님들과 유가족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사무처장 호산 스님이 대독한 조사에서 "종민 스님은 불문에 든 30년 동안 포교일선에서 한국불교를 이끈 동량이었다"며 "다음 생에 여기 있는 모든 인연들과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 가피 속에 같이 하시길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몸은 죽어도 업보는 살아서 육도를 흘러 다니는 것이니, 원컨대 이 몸이 백 번 천 번 죽더라도 이 땅에 불법의 빛을 주는 연이 되게 하소서"라고 법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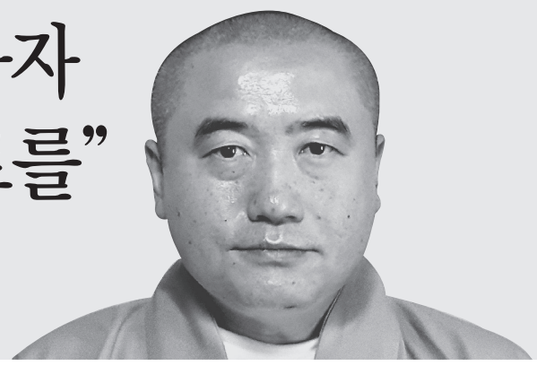
한편 종민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서울약사사 주지와 제15~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전쟁 美 전사자 불교계서 첫 위로를"

Interview

미군 전사자 천도재 여는 광언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미군부대 인근 송탄 송덕사
6월 15일 천도법회 봉행해
불자와 33인등 달기 운동도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가 많았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군부대 인근 사찰 주지를 맡으면서 미군 전사자가 많다는 걸 알게 돼 그들을 위한 천도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송탄지역에 위치한 천태종 송덕사가 한국전쟁에 참여해 전사한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법회를 6월 15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송덕사는 12일부터 16일까지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하면서 15일에 별도로 미군 전사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올렸다. 송덕사 그리고 천태종 차원에서 이 같은 행사는 처음이다.

송덕사 주지 광언 스님은 우연한 인연을 통해 천도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송덕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지인과 함께 인근 미군부대를 방문하면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사찰신도회 간부가 미군부대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곳을 가봤습니다. 이런저런 안내를 받다가 한국전쟁 당시 돌아가신 미군 전사자가 3만5686명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남의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천도법회는 '충효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전사자 중 미군을 위한' 이라는 주제로 봉행됐다. 삼귀의와 국민의례, 묵념 등을 통해 미군 전사자를 기리고,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이 법사로 나서 영가들을 추모했다.

미군부대 규정상 군인은 외부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 행사에는 미군이 없었지만 송덕사 불자들은 함께 마음을 모았다. 특히 송덕사는 이번 천도법회 일환으로 미군 전사자들을 위한 '33인등 달아주기'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많은 송덕사 불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 미군 가족들을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로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과 천태종이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어느 생에서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자님들과 의논해 미군 전사자들을 위한 등을 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광언 스님은 이번 천도법회를 계기로, 미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행사가 종단차원서 마련되길 기원했다.

"사람이 존중받고, 생명이 존중받는 곳. 지나간 생명도 지금의 생명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야말로 불국정토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로하는 일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캐나다도 사찰음식 '홀릭'

불교문화사업단 몬트리올서
이틀간 사찰음식 만찬행사



사찰음식 만찬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참석자들.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캐나다에서 한국불교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의 매력을 뽐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5~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사찰음식 만찬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문화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북미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사업단은 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6일에는 언론 관계자 및 일반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만찬을 진행하고 템플스테이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 자리서는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조리팀(김지영 조리장)이 사찰음식 코스요리를 선보였으며,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연꽃 만들기와 인경 탁본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만찬에서는 한국 사찰음식의 오랜 전통과 역사, 불교에서 음식을 바라보는 정신, 오관게의 의미 등을 설명함으로써 현장의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찰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식사 역시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는 한국불교문화와 사찰음식의 의미가 특히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한국 전통식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사찰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사찰음식 및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찰음식 및 템플스테이 홍보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춘명 스님 공적비 제막

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청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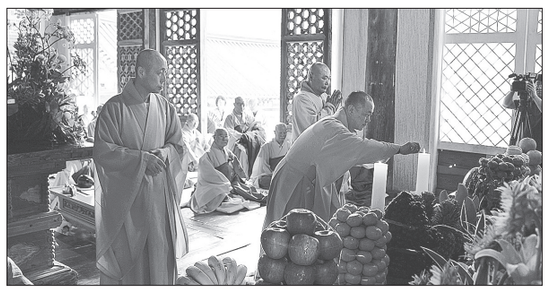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은 6월 7일 전북종무원청사에서 춘명문도회, 영산작법보존회, 종무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명 스님 공적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춘명 스님은 전북지역 근세 선지식으로 태고종 승정을 역임했다. 행사에서 춘명 스님이 주석하던 김제 원각사 주지 선국 스님은 전북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혜산 스님 14주기 추모재

부안 내소사, 6월 8일 경내 대웅보전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6월 8일 경내 대웅보전서 전북지역 대표 선지식 우암당 혜산 스님의 14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문도회를 대표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혜산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불사계획을 세워 지금의 내소사 가람을 이룩했다"며 "스님의 14주기를 맞아 원로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붕 스님 23주기 추모대재

(재)일붕선교종, 서울 종로서 100여 명 모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6월 11일 서울 종로 일붕선원에서 일붕존자 열반 23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종정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대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호계원장 석성 스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추모재는 총무부장 원공 스님 사회로 타종 · 삼귀의례 · 발원문 ·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가 온 미얀마 바간의 쉐지곤파야

지금은 사리탑 일부만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사리탑을 완성하려면 기초공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신사리를 꺼내야 하기에 친견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다시 사리탑 안에 봉안하면 탑을 부수지 않는 한은 친견할 수 없게 되오니 인연 있는 분들은 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19년 6월 29일(토) ~ 7월 7일(일) 매일 10:00 ~ 13:00

장 소 경기도 연천 오봉사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245번길 384)

예약방법
www.gangnambu.org/45 접속 후
사리탑건립불사 메뉴 중 [친견법회예약] 선택

주 의
1. 법회 후 친견하기에 **10시까지 입장**하셔야 친견할 수 있습니다.
2. 점심공양과 차량운행관계로 **반드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02-532-0012

진신사리의 유래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강남불교대학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불교대학(민족통일진신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